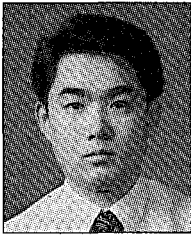


## Resin-bonded prosthesis의 문제점과 해결책

오상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 연자약력

- 1989~1992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수련
- 1998 :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 1998 : 해외 Post-Doc선정(츄리히대학, 한국과학재단후원)
- 현재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조교수

Resin bonded prosthesis는 한마디로 partial veneer crown보다 좀더 보존적인 일종의 3/4 crown이다. 따라서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3/4 crown을 위한 지대치 삭제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생역학적인 원칙(치질 보존, 유지와 저항형태, 수복물의 구조적 내구성, 변연의 완전성 그리고 치주조직 보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980년대 초, Thompson, Livaditis, Del Casillo 등의 발표로 임상가에게 이 술식의 장점인 치질 보존, 치과 의사와 기공사 모두에게 용이한 술식, 그리고 저렴한 비용 등이 크게 어필되어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성행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임상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탈락률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뒤 계속된 연구를 통해 이 술식이 매우 섬세한 지대치 삭제와 기공작업이 요구되는 술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전의 높은 탈락률은 레진의 접착력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신중한 환자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착조건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실했으며, 무엇보다도 적절치 못한 지대치 삭제와 금속구조물 설계에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연자는 골조직과 치주조직 그리고 법랑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인체나 치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가장 보존적이고 가역적인 특성을 지니는 이 resin-bonded prosthesis가 임상가에서 확대받고 있는 이유를 생물학적인 면, 기계적인 면 그리고 심미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